

# 무안~라오스 하늘길 주 2~4회 열린다

### 10월 비엔티안·12월 루앙프라방 노선 개설 업무협약 전남도, 무안공항 활성화 위해 기존 취항 노선 확대 나서

무안-라오스 간 하늘길이 열린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데다, 기존 취항 노선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항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 이전 장기 지연되면서 더디지만 한 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제선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직원 가운데 500~1000명(1팀 당 4명 이상)을 선발한 뒤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에서의 전남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전남도청에서 무안군-한국공항공사-라오스 국영 항공사 라오항공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3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이 내년 3월까지 주 2~4회 운영된다. 루앙프라방 노선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 2~4회 운항한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로, 아름다운 불교사원으로 유명하다.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1995년)된 라오스

제 2의 도시다.

라오항공측은 부정기선으로 운영하면서 이용객 수를 고려해 취항 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기선이라도 전체 공급 좌석의 20% 이상을 인터넛 등에서 직접 발권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또 루앙프라방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에서만 직항으로 운영돼 다른 지역 공항에 견줘 이용객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무안~라오스 노선 개설로 관광·문화 협력 뿐 아니라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의 출입국도 활발해지면서 늘어선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항공사 운항장려금 등 파격적 재정지원과 무안군,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만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3번째로 라오항공과 국제노선 협약을 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현재 중국(장기계-연길), 몽골(울란바토르) 간 정기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베트남(나트랑·다낭·푸꾸옥·달랏) 노선에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Date Tue, July 23, 2024 Venue Seo Jae-pil Hall, Jeollanam-do Office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라오항공과 '라오스 라오항공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무안공항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기준 무안공항 국내·국제선 이용객은 22만여명으로 이미 지난해 이용객(24만 6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의 경우 지방 공항으로는 유일하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왕복 6~8시간 거리의 동남아 노선을 운항한 뒤 제주 등으로 국내선을 운항하는 등 효율적 항공 운항이 가

능한 공항인 점을 적극 활용, 무안공항 국내·국제선 이용객 50만명을 목표로 다양한 해외 노선을 발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시아 5개국 공무원, '인권도시 광주'서 인권행정 연수

###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14명 5·18사적지·ACC 등 현장학습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국 공무원들이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권 및 인권행정에 대한 교육연수와 현장학습, 문화체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등 광주 곳곳에서 '지방정부 인권행정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다국가 글로벌 연수 '지방정부 인권행정 역량강화' 공동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해는 아시아 5개국 인권행정 또는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공공행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 국가는 방글라데시(3명), 스리랑카(3명), 파키스탄(3명), 키르기스스탄(2명), 투르크메니스탄(3명) 등 5개국 14명이다.

이번 연수에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등이 힘을 보탤다.

연수 프로그램은 ▲인권의 역사와 기본 개념 ▲ 인권과 공공행정 ▲인권이슈 ▲인권행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5·18민주묘지 및 5·18사적지, 아시아문화전당(ACC) 등에서 현장학습과 문화체험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인권교육을 통해 광주가 가진 인권 경험과 가치를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등 인권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권의 이해와 감수성 증진으로 조직 내 인권문화가 정착되고 광주 5·18정신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버려지는 유자씨·박, 화장품·발포음료로 재탄생

### 전남농기원, 부산물 활용 제품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후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가량 함유돼 있으며 구연산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피로회복에 좋은 유기산 성분도 레몬, 매실보다 많다. 또 과육이 많은 과일이지만 신맛이 강해 생과로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 가공제품으로 유자청과 즙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과를 작중된 원액을 식품 중간소재나 음료 제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연간 약 3000여 t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유자씨와 유자박 등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 과수 육성 사업으로 유자 작목을 지정받아 연구와 제품 개발 등을 나눴다.

연구 결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해 유자씨 오일을 추출, 화장품 소재로 탈바꿈시켰다. 화장품 효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도 마쳤으며, 오는 9월 에스테틱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또 버려진 유자박을 이용해 발포음료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

고 찬물에 녹여 마시는 발포음료 유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기 쉽고 휴대성이 아주 편리하다.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과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완도군 소재 가공업체에 기술이전했으며, 오는 9월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유자 부산물 활용 산업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소, 고흥 두원농협과 3자 업무협약을 하고, 유자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유자씨를 소득자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올해는 유자씨 1t을 오일로 추출, 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모으기로 했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그동안 가공업체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애용단지였던 유자 부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유자산업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민생경제현장 소통 릴레이

### 8월 복합쇼핑몰 입점 대응 연구용역

광주시가 고급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현장을 찾아 소통 릴레이에 나선다.

2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민생경제현장을 찾는다.

강 시장은 이날 첫 번째 소통 행사로 열린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복합쇼핑몰 개점 추진과 관련

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상생발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대응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인근 소상공인 현황과 상권 특성,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상생방안과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강 시장의 의지다.

강 시장은 또 오는 26일 광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하는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광주 대표 9대 산업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업이 한 번 위기를 맞아 무너지면 다시 회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게가 무너지면 사회 근간이 흔들린다"며 "민생을 돌보고 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언제나 지방정부의 역할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청·공감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